

‘울돌목 신화’...명량대첩축제 27~29일 개최

해남 우수영·진도 녹진 일원서
28일 ‘명량 해전’ 재현 축제 백미
야간 프로그램 강화 볼거리 풍성



‘2019 명량대첩축제’가 27일부터 사흘간 ‘불멸의 명량! 호국의 울돌목!’이라는 주제로 해남 우수영과 진도 녹진 등 울돌목 일원에서 펼쳐진다. 축제의 백미로 꼽히는 명량대첩 해전 재현. (해남군 제공)

‘2019 명량대첩축제’가 27일부터 29일 까지 사흘간 ‘불멸의 명량! 호국의 울돌목!’이라는 주제로 해남 우수영과 진도 녹진 등 울돌목 일원에서 펼쳐진다. 명량대첩축제에서는 정유재란 당시 기적의 대승으로 불리는 명량대첩과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기념행사와 명량대첩 당시를 생생히 느낄 수 있는 역사 문화 체험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축제의 백미로 꼽히는 명량대첩 해전재현은 울돌목 바다에서 28일 오후 12시30분부터 1시까지 진행된다.

란대첩 해상 퍼레이드와 함께 해전재현이 메인행사로 이어진다.

전국에서 모인 전국수군무예대회와 명량청소년 가요제, 온겨레 강강술래 한마당, 명량대첩 축하쇼, 미디어파사드 등이 개최된다.

특히 야간 프로그램을 강화해 밤에는 우수영 명량대첩해전사 기념전시관 외벽을 활용한 영상공연 미디어파사드가 펼쳐지고, 강강술래 EDM 밤과 비보이와 무용의

협업 공연 인수화풍 퍼포먼스, 드론라이트 쇼인 명량대첩 별들의 전쟁 프로그램 등이 이어진다.

국내외 20여 개팀이 참여하는 전국조선수군무예대회와 무예버스킹, 해군음악회 등 특색있는 볼거리와 함께 조선시대 저잣거리 체험과 수군 체험 등 가족단위 즐길거리도 풍성하게 마련됐다.

26일부터 30일까지 제1진도대교의 교통이 통제되며, 축제장까지 셔틀버스(해

남읍-축제장, 우수영여객터미널-축제장)가 운행돼 관광객들의 교통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박진감 넘치는 해전재현을 비롯해 다른 축제에서는 볼 수 없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했다”며 “축제의 즐거움은 물론 역사문화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의미있는 축제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해남군, 유·청소년 수학여행단 유치 나서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등 편의 제공...단체엔 인센티브 지원도

해남군이 미래 잠재적 관광수요자인 유·청소년기 수학여행단 유치에 나섰다. 수학여행단의 경우 20명 이상 1인당 1일 5천원(유료관광지 2개소, 음식점 1식 이상), 1박 2일 1만원(유료관광지 3개소, 음식점 2식 이상, 1박), 2박 3일 1만 5천원(유료관광지 4개소, 음식점 3식 이상, 2박)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신청자에 문화관광 해설사 배치, 남도민요·강강술래 배우기 등 야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군은 수학여행 맞춤형 추천코스를 담은 인센티브 홍보 책자를 광주와 경기지역 900여개 초·중학교에 배포했다. 전국 교육청을 통해 해남군만의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체험활동 등을 소개하고 수학여행단 유치 여행사 및 학교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안내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맞춤형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수학여행단 유치를 박차를 가하겠다”며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수학여행단 유치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진도군, 취약계층 ‘사랑의 옷 나누기’ 눈길 7가구에 아동의류 등 100여점 전달

진도군이 취약계층 세대에 ‘사랑의 옷 나누기’를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진도군 드림스타트는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의 일환으로 아동 의류 등을 기부받아 취약계층 7세대에 100여점을 전달하는 사랑의 옷 나누기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의 입술거리 등을 충족하고 부모의 의류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추진 중인 사업이다. 가정에서 입지 않은 아동복, 신발, 책, 장난감 등을 일반가정 등에서 수시로 기부 받아 깨끗하게 손질해 전달했다. (사진) 의류를 전달받은 세대의 엄마는 “평소 남편이 아이들 옷을 많이 산다며 핀잔을 줬다”며 “이제 옷 풍년이 들어서 부자가 된 것 같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진도군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의류나 장난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변의 생활속 나눔 실천과 기부 문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재활용 의류나 장난감 등을 드림스타트에 기부해 달라”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진도군, 농지 지력증진 벚짚 환원사업 추진

진도군이 친환경 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을 위해 2억원을 들여 친환경단지 지력증진 벚짚환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단가는 1ha 당 20만원이며, 최대 10ha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이며 희망자는 9월말까지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에 대해 10-11월 현장 확인을 거쳐 12월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벚짚 환원은 지력이 떨어진 논·밭의 유기물 함량을 높이고 친환경 고품질 벼 생산량 증대에 큰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완도군, 국제인증 수산물 공급 확대 총력전

지역 업체 2곳과 협약 체결
특산품 우수성 홍보·판매도



완도군이 지역 업체 두 곳과 협약을 맺는 등 국제인증 수산물의 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지속 가능한 국제인증 수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주)올가솔푸드, (주)청산바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협약에 따라 군과 업체는 완도 특산품을 활용한 FRM(즉석 신선식품) 제품 확대, 지속 가능한 국제인증 수산물 생산 및 품목 확대, ASC인증 전복 및 완도산 수산물 유통망 구축 확대, 완도 수산물이 소비자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도록 홍보·판매에 협조하기로 했다.

(주)청산바다는 2007년도에 일본-대만 등에 전복을 수출하고, 2013년도에는 해양수산부 지정 전복 수출선도 조직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전복과 관련해 아시아 최초로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인 ASC를 받았으며, 완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인증을 받은 완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내 시장 유통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완도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jtbc 휴먼 드라마 ‘초콜릿’
완도군, 제작 지원 협약 체결

완도군이 오는 12월 방영 예정인 jtbc 금토 드라마 ‘초콜릿’의 제작 지원에 나섰다.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신우철 완도군수와 임병훈 jtbc 드라마 제작국장, 제작사인 JYP 픽처스 표종록 대표, 배우 윤계상과 하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작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jtbc 금토 드라마 초콜릿은 신경외과의사 이강(윤계상 분)과 음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루만지는 불처럼 따뜻한 셰프 문차영(하지원 분)이 요리를 통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휴먼 멜로드라마이다. 군은 전복을 비롯해 김, 미역, 다시마, 톳 등의 생산 현장과 수산물을 활용한 요리 등을 드라마에 담아 완도산 수산물을 시청자들에게 알리고자 제작 지원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전복 양식장과 남해안 최고의 휴양지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 완도군의 랜드마크인 완도타워, 국내 최대 난대림인 완도수목원 등을 드라마에 자연스럽게 노출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그린알로에

GREEN GOONG PRIME EVER 120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